

6강

삼공본풀이

- 내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 을 일구는 삶

삼공본풀이

- 내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 을 일구는 삶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1. 전상의 근원, 삼공본풀이

강이영성이서불과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납은 가난하여 서로 사는 마을로 얻어먹으러 가다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둘이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사는데 첫 딸이 태어났다. 부부가 너무 가난하니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먹여 살려주어 '은장아기' 로 이름 지었다. 곧이어 둘째 딸이 태어나니 역시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에 먹여 살려주어 '놋장아기' 로 이름 지었다. 셋째 딸도 태어나니 동네 사람들이 나무바가지에 먹여 살려주어 '가문장아기(감은장아기)' 로 이름 지었다.

딸 삼형제가 태어나 자라가니 부부는 점점 발복하여 천하 거부가 되었다. 삼형제가 열다섯이 넘은 어느 날 부부가 앉아서 심심하니 딸아기들과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는 문답을 하였다. 은장아기와 놋장아기가 아버님과 어머님 덕이라고 말하자 부부는 흡족하게 여겼다. 그러나 가문장아기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덕도 있지만 자기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산다고 대답하였다. 부모는 불효막심하다면서 가문장아기를 내쫓았다.

어머니는 부모의 정으로 가문장아기가 식은 밥이나 먹고 가게 하라고 은장아기와 놋장아기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가문장아기에게 부모가 너를 때리러 온다며 거짓으로 전하였다. 가문장아기는 둘을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각각 변하게 하였다. 부부는 딸들의 소식이 없자 무슨 일인가 하며 문 밖으로 나오다가 문 위 지방에 눈이 걸려 장님이 되어 버렸다. 그 뒤에는 재산을 탕진하여 거지로 나서는

신세가 되었다.

가믄장아기는 집을 떠나 길을 가는 도중에 깊은 산으로 올라가다 해가지니 허름한 초막을 발견하고 하룻밤 머물기를 청하였다. 집주인 노부부가 아들 삼형제 때문에 방이 없다고 하자 가믄장아기는 부엌이라도 좋다며 허락을 얻었다. 조금 있으니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가 마를 파서 집으로 돌아와 지나가는 여자를 집에 들였다면서 부모에게 욕을 하였다. 그러나 작은마통이는 이를 반가워하며 받아들였다. 가믄장아기가 삼형제의 행동을 살펴보니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는 불효하고, 작은마통이는 효도하여 쓸 만한 사람이었다. 가믄장아기는 작은마통이와 서로 언약을 하고 부부 사이를 맺었다.

다음날 아침 가믄장아기는 작은마통이에게 마 파는 곳을 구경 가자고 하였다. 가서 보니 큰마통이가 파던 곳에는 똥만 있고, 둘째 마통이가 파던 곳에는 지네, 뱀 등이 가득하였다. 작은마통이가 파던 곳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나왔다. 금은을 거두어 파니 가믄장아기와 작은마통이는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가믄장아기가 자신의 부모가 거지가 되었을 것이라며 부모를 찾기 위하여 거지잔치를 열었다. 거지잔치 백일 만에 어떤 거지 부부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들어왔다. 가믄장아기는 하인들에게 그 거지 부부를 가지 못하게 잡아두었다가 다른 거지들이 다 가버린 뒤에 안방으로 청해들이라고 하였다. 거지 부부를 안방으로 청하여 대접하자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가믄장아기가 와서 거지 부부에게 옛말이나 말해보라고 청하였다. 거지 부부는 옛말 대신에 자신들이 살아온 말을 하였다. 가믄장아기는 거지 부부에게 술을 드리며 자신이 가믄장아기라고 말하였다. 거지 부부가 들었던 술잔을 털썩 놓았는데 다시 부부의 눈이 밝아져 개명천지가 되었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강이영성이서불 : 가믄장아기의 부. 가난한 거지였으나 혼인하여 딸들을 낳은 뒤로는 부자가 됨. 자만이 생겨 가믄장아기를 내쫓은 뒤 눈이 멀고 집안이 몰락하여 다시 거지가 됨
-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남 : 가믄장아기의 모. 강이영성이서불과 같은 처지
- 은장아기 : 첫째 딸. 부모가 가믄장아기를 내쫓는 데 일조함

- 늦장아기 : 둘째 딸. 부모가 가문장아기를 내쫓는 데 일조함
- 가문장아기 : 셋째 딸. 부모에게 자신의 덕(복)에 산다고 말하여 쫓겨났지만 죽은마통이와 혼인한 뒤에 부자가 됨. 거지잔치를 하여 눈이 먼 부모를 찾고 만나서 부모의 눈을 뜨게 함
- 큰마통이 : 가문장아기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하고 불효함
- 셋마통이 : 가문장아기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하고 불효함
- 죽은마통이 : 가문장아기를 받아들이고 효도함. 가문장아기와 혼인한 뒤 부자가 됨



<사진 1> 삼공본풀이(상잔점)



<사진 2> 삼공본풀이(상잔점)

2. 내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을 일구는 삶

[전상]

삼공본풀이는 자기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을 일군 가문장아기의 내력담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말하는 전상은 현재는 아직 흔히 ‘전생’ (前生)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실상 이 전상의 개념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전상은 어떤 행위나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술을 먹는 것도 전상이고 도둑질 하는 것도 전상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전상이며 심방일을 하는 것도 전상이라고 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나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상 중에서 ‘좋은 전상’은 맞아들이고 ‘나쁜 전상’은 풀려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애초에 거지로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살림이 어려워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었다. 하지만 부자가 된 뒤로는 가난하였던 지난날을 잊고 점점 자만한 모습을 보였다. 세 딸이 성장하자 급기야 아이들을 불러놓고는 누구의 덕에 사느냐는 질문을 하는 데 이르렀다. 집안의 발복을 오로지 자신들의 업적으로 여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 셋째 딸을 내쫓은 뒤에는 눈이 멀고 다시 가난해지는 나락으로 빠져 버렸다.

은장아기와 늦장아기,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의 모습은 비슷하다.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부모가 만든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가문장아기가 쫓겨날 때에도 도움은 커녕 거짓된 행동을 하여 결국 인간의 모습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도 자신들의 집을 찾아온 가문장아기를 다짜고짜 배척한다. 음식을 두고서도 자신들이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고 늙은 부모를 하대하였다.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익숙한 것이 아니라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은 마가 아니라 똥, 지네, 뱀 등이었다.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에 사느냐는 부모의 물음에 부모의 덕이면서도 자신의 복으로 산다고 당당히 말하였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자각하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준다. 스스로 삶과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집을 떠나 마통이네 집에 도착해서는 여러 상황을 지혜롭게 헤아려 셋째 마통이를 선택한다. 물론 셋째 마통이는 위의 두 형에 견주면 부모를 보살피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가 은장아기와 늦장아기의 모습이라면 셋째 마통이는 가문장아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 결과 가문장아기와 셋째 마통이는 마 대신에 금은을 얻고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나중에는 장님 거지가 된 부모의 삶에도 변환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간다.

삼공본풀이에 나타나는 가문장아기의 생각과 행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문장아기의 생각과 행동은 분명 그의 부모, 두 자매와는 매우 달랐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였다. 지혜롭고 통찰하는 안목이 돋보인다.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좋은 전상’을 일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결국

스스로 복을 불러오는 데 이른다. 곧 삼공본풀이에서 ‘내 복에 산다’는 것은 그에 맞는 ‘좋은 전상’을 행하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운명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고난 전상’만큼이나 ‘좋은 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그리고 보면 삼공본풀이는 우리들에게 삶의 이치를 가르쳐준다. 본풀이의 구비철학적 면모를 매우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놀레]

삼공본풀이는 심방이 장구를 치며 구연하는데 후반부에 이르면 ‘놀레’라고 하는 방법으로 푼다. 이때 심방은 장구를 치고, 소미 한 명이 옆에서 북을 함께 연주한다. 놀레에서는 가문장아기와 부모가 만나 서로 살아온 내력을 구슬프게 노래한다. 삼공본풀이의 내용이 놀레에서 축약되어 거듭 다루어지는 셈이다.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찾기 위하여 거지잔치를 열었고 백일 만에 장님이 된 부모와 상봉하며 부모의 눈은 다시 밝아진다. 부모의 개안(開眼)은 심방이 놀레 뒤에 술을 따라 놓은 상잔으로 점을 쳐서 확인한다.

<부모>		<가문장아기>	
옛날 옛적	간은 옷상실	아바~지	어머님 눈에 난
간이영성이곡	우리 할망	올레 바꿨디	나와시난에
알상~실은	홍문수천	큰 성(兄) 오란	아버지가
구에궁전	살앗수다	몽맹이 들런	느 두드리레
우인넉케	승년(凶年) 들영	오람젠 허~난	느려산 게
아랫넉케	풍년 뒤엇저	청지~냉이	흑지냉이 뒤고
소문 들언	얻어 먹으레	셋 성~은	어머님이
아랫넉케	내려가단	느 딱리레	오람젠 일러부난
아랫넉케	홍문수천	걸럼 우이서	용달버섯 뒤언
구에궁전	우인넉케	이내 몸은	걸~어
올라가단	길로변(-路邊)에서	나사 앓언	질을 일러근
만나그~네	부베간(夫婦間)을	걸단 걸단	바려보난
삼은 것이	은장아기	큰마통이	마 파는 디
물?랑에~서	탄생허고	넘어사고	셋마통이
흐꿈 나사난	늦장아기	마 파는 디	넘어사고
비주리초~막	탄생허고	죽은마통이	마 파는 디 가난
가문장아기	숫아나난	[불청] 아래서	굴아주난
이 아기	탄생헌 게	비주리초~막	할망신디 오란

남전복답	너른 전지여	주인 못안	그디~서
고대광실	들 높은 집 난	족은마퉁이영	부베간 인연 뉘연
거~부제로	잘 살아지난	살단 보~난	돈도 나오고
흐를날은	큰뜰아기	금도 나오고	은도 나난
은장아~기	불러다근	부모님네	훗젠 허~난
누게 덕(德)에	먹고 입고	걸인잔치를	열럼수다
행공발신을	허염느냐	아버지야	나 술 혼 잔
하나님도	덕입네~다	받음~서	어머님아
지에님도	덕입네다	나 술 혼 잔	받음~서
아버지 어머니	덕입네덴	아버지 어머니	[흐느낀다.] 손을 심영~
일르~고	셋뜰아기	비새 ㄱ찌	올어가명
늦장아기도	그와 ㄱ찌		
말을 허고	족은~뜰		
가문장아~기	하나님 지하님		
아버지 어머니	덕이우다		
마는 허뉘	나 베토롱 알		
선그몯의	덕이우덴 허난		
딱리젠 허난	다울리난		
집 나간 게	은장아기 ㄱ라		
느네 아시 가근	돌앙 오렌		
보낸 것~이	아니 오고		
늦장아기	보내~난		
아니 오란	우리덜은		
뜰덜 훗~젠	베갯더레		
바당더레	나오젠 현 게		
문지 문대방에	입쟁이에		
눈덜 박안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에서 일부 인용

[전상놀이]

삼공본풀이는 제주의 ‘굿놀이’ 가운데 하나인 ‘전상놀이’와 밀접하다. 전상놀이는 연극적인 의례이다. 삼공본풀이의 내용에서 거지잔치를 하는 부분이 전상놀이에서 연극적으로 행해진다. 본풀이의 내용이 굿판의 단골들 앞에서 실감나게 펼쳐지는 셈이다. 전상놀이는 장님 거지부부를 통해 전상을 연극적으로 보여주고 굿판에 있는 모든 이들의 전상을 풀어

내는 것이다. 현재 전상놀이는 자연적인 곳판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곳과 같은 큰곳에서 아주 드물게 벌어지는 데 그치는 형편이다.



<사진 3> 전상놀이(김수남 사진)



<사진 4> 전상놀이(김수남 사진)

전상놀이를 할 때 ‘전상 탈’ 이라는 종이 가면을 사용한다. 즉 소미 2인이 이 종이로 만든 탈을 쓰고 가문장아기의 장님 부모 역할을 한다. 탈을 쓴 소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한 것이다. 전상 탈은 그 형태가 매우 단순하다. 네모난 흰 한지에 눈, 코, 입만 형상화 되게 간단히 오린 것이다. 한마디로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사진 5> 전상 탈

(이 글은 제주신화학교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

